

이국땅 서독 간호사와의 아름다운 해후

작가 에세이

공옥동

광주문화 상임부회장
사)문병란硯 창립회장

독일에 사는 동서와 그 가족들이 왔다 한국 형제와 가족들이 보고 싶고 어릴 적 고향 언덕과 동병과 공동우물가 빨래터와 뒷산 다랭이논과 밭이 그림과 한국음식이 어찌나 먹고 싶던지 그 추억들을 찾아 집을 꾸렸다 한다. 우리 집에서는 아침마다 바게트와 우유, 치즈, 과일, 베이컨슬라이스와 커피내림 등으로 함께하고, 나들이에는 어릴 적 가난해서 못 먹어본 팔죽막국수 봉어빵 만두 김밥 비빔밥 등을 같이하며 저녁에는 김치와 생채나물무침에 불고기와 와인을 곁들이며 창밖의 별과 달과 함께 서로의 지나온 삶을 나누었다.

처형은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부모와 오빠 동생들의 가족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파독 간호사로 서독으로 건너갔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전쟁의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나라였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어려워지자 군사정부는 같은 분단국인 서독으로 눈을 돌렸다. 서독에 파견된 한국의 차관 교섭단은 1억 5000만 마르크의 상업차관 도입에 합의했다. 이때 서독 측이 제의한 것이 한국인 광부 5000명과 간호인력 2000명을 서독에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룬 서독은 노동력 부족으로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하고 있었다. 당시 취업이 어려웠던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서독과 견 간호사 모집에 중학교 졸업자 이상을 자격으로 했는데 대학교 졸업자가 20% 이상이었으며, 2000명을 뽑는 첫 간호사 모집에는 2만 명이 응모했다.

파독 초기에 현지에서 언어와 낮은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당황스런 순간들에서부터 머나먼 이국땅에서의 삶에 지쳐 귀국이나 연장이냐를 고민했던 순간들간 엄습해 오던 고향 그리움 외로움과 고독을 그 누가 보상 할 수 있리.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근면과 성실성으로 현지 업체와 병원의 인정을 받았고 이들이 아껴서 송금한 돈은 그들 가족과 외환이 부족한 고국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멋지고 훌륭한 여성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처형이라고 말하고 싶다. 외로운 이국땅에서 전반의 과정을 잘 견뎌온 그 분과의 해후가 이리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한 해의 결실이 되어 가슴 한 켠에 축축하게 젖어 들고 있다.”

동서 가족은 32일 동안 머물며 순천 정원박람회, 하동 화개장터, 부산 감천마을 동백섬 해운대 해돋이공사, 경주 불국사, 서울 경복궁 등을 돌며 각 지역의 보물과 유적 음식문화 등을 함께 체험하며 가는 곳마다 축배를 하며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발전과정에 감탄을 자아내었고 멋스럽고 맛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감동 감화 만족의 환성과 환호를 자아내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야에 우리는 치맥을 제안하고 많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건배, 축배, 짬짬으로 잔을 부딪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고, 그들은 제2의 고향 독일로 떠났다.

3일이 지났을까. 요란스러운 전화벨소리와 함께 동서와 처형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사히 도착하였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여행의 답을 전하며 광주 5·18 묘역의 송고한 나라사랑, 부산 감천마을의 삶의 애환, 독일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상 등 값진 여행의 표적들을 이야기 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치맥으로 축배를 들던 순간도 인상 깊게 남는다 했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만남과 축하, 축배의 행복한 의미를 선물하는 파티라며.

이국땅 서독에서 광부와 간호사들은 조국에서 기대하는 가장으로의 삶과 근면과 성실성으로 현지 업체와 병원의 인정을 받아야 했고 이들이 아껴서 송금한 돈은 외환이 부족한 고국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간호사들은 대부분 고용계약이 연장되어 장기간 근무하면서 일부 간호사들은 한국인 광부들과 결혼하여 독일에 정주했고 독일인과 결혼한 여성도 많다. 파독 한국 간호사의 절반 이상은 독일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는 루르 지역이나 라인란트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은 독일 최대이자 서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 교민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멋지고 훌륭한 여성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처형이라고 말하고 싶다. 외로운 이국땅에서 삶에 지쳐 귀국이나 연장이냐를 고민했던 순간, 하지만 끝내 결혼을 통해 정착하면서 현재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는 전반의 과정을 잘 견뎌온 그 분과의 해후가 이리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한 해의 결실이 되어 가슴 한 켠에 축축하게 젖어 들고 있다.

이기흥 아씨어...기열!

취재수첩

한규빈

취재2부 기자
gyubin.han@jnilbo.com

“새끼... 기열!”

해병대의 부조리와 사건 사고를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해병문학’에 등장하는 말이다. 선임들이 ‘아씨어’라고 불리는 신병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군대에서 말하는 기열(기수 열외)에 비해 가벼운 의미다.

최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아씨어’가 될 것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해단식 기자회견에서 새해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기 전 해병대 극기 훈련을 받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본인도 함께 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앞서 장재근 진천선수촌장이 선수들 정신력 운운하며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와이파일을 끊고 의무적인 새벽 훈련과 산악 구보를 실시했던 터라 비판 여론은 더 거셀다.

비판 여론이 일면서 해병대 훈련은 농담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결국 현실이 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원 팀 코리아 캠프’라는 이름으로 500여 명을 포함 해병대 1사단에 입소시

켰다.

수영 김우민과 양궁 김우진, 육상 우상혁, 체조 여서정, 펜싱 구본길 등 국가대표 선수단이 차출됐고 대한체육회와 회원 종목 단체 임직원도 동원됐다. 지역에서는 근대5종 전용태와 양궁 최미선 등이 입소했다.

체육계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해병대 훈련 목적을 ‘파리 올림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신력 강화와 해병대의 충성, 명예, 도전 정신 학습’으로 설명했는데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를 위해 훈련을 포기해야 했다. 최강한파 속에 선수들이 훈련을 내려놔고 부상자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해병대 출신 한 체육계 관계자도 이번 훈련을 두고 “현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 저 역시 해병대에서 추구하는 정신을 높게 평가하지만 이를 스포츠 정신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이겨야 하고, 우승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혹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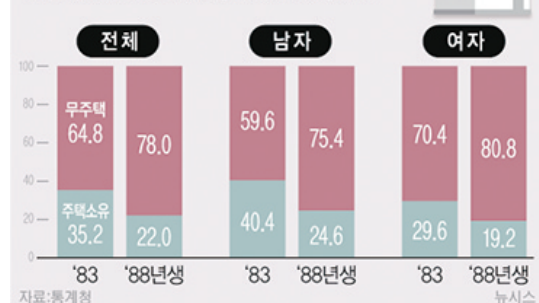
올림픽 정신이 뭔지 간부들이 제대로 몰라 생긴 문제다. 근대 올림픽 이상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에 있다.

올림픽 강령에서는 ‘올림픽 의의는 승리가 아니라 참가에 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기흥 회장과 장재근 선수촌장 등 간부들이 성적을 논하기 이전에 올림픽과 스포츠의 정신,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길 바란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1983~1988년생 주택소유 비중

단위: %, 2022년 기준 1983년생 39세, 1988년생 34세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 전 편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소파석 (키보드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펀디마켓 충장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본관(1관) 주차장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주차장 안내

주차장 안내

전용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제휴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09:00~오후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후, 추가요금 발생됩니다.

드림플러스파라이스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가능(내부: 동아 대관객 한정)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1관	서울의 봄
2관	노랑:죽음의 바다
3관	서울의 봄
4관	바다 탐험대 옥토퍼트 어보브 앤 비온드
5관	노랑:죽음의 바다
6관	노랑:죽음의 바다 / 도티와 영원의 탑
7관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8관	노랑:죽음의 바다
9관	신차원! 장구는 못말려 더 무비
8관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9관	트루:밴드 투게더
	류이치 사카모토:오퍼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료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